

圖 30. 「天」「地」「衣」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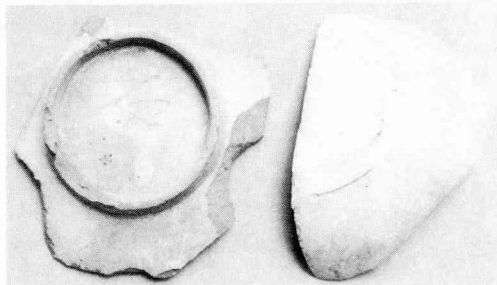


圖 31. 「右」「左」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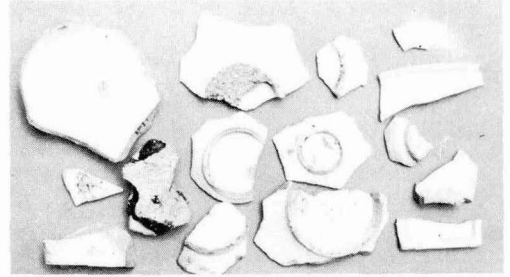


圖 27. 金沙里 1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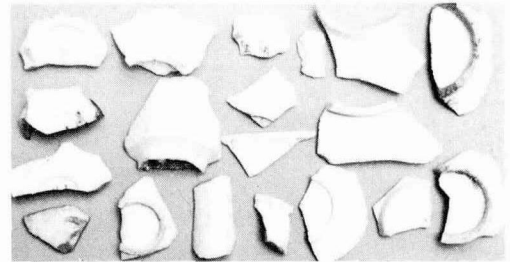


圖 28. 金沙里 3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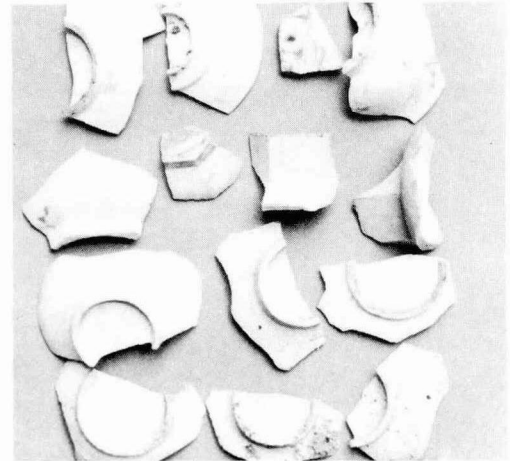


圖 29. 分院里 1號窯址

韓國의 佛教服飾에

關한 研究(二)

— 傳存遺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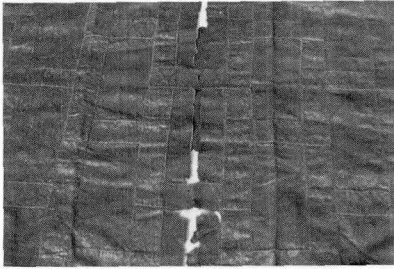
中心으로 —

任 榮 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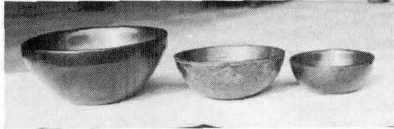
朝鮮王朝時代의 法衣

羅麗 千年을 通하여 長久한 세월에 걸쳐 이 나라의 精神의 支柱 力을 弱을 하였던 佛敎는 時代가 降下하여 敎法이 차츰 弛弛되고 僧侶가 점차 腐敗하여 감에 따라 麗末에 이르면서 衰頹하기 始作하다가 새로운 李氏 王朝가 開國된 뒤로부터는 國初부터 계속되는 배척과 억압政策에 밀려나 思想界의 指導權을 儒敎에게 양보하고 蹤跡을 거두어 멀리 山中으로 도피하여 沒落의 一路를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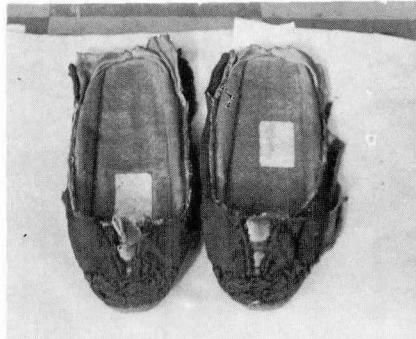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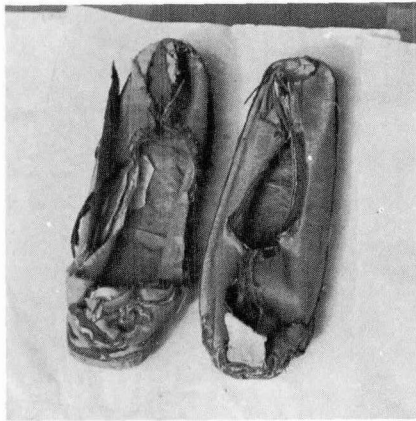
그러나 李朝의 佛敎가 外的으로는 비록 斜陽길을 걸었지만 그 急進的인 生活은 反面 內的인 修行을 더욱 切實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朴해와 수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많은 名僧 高衲이 배출되어 찬연한 신라와 고려 불교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다. 이 時代의 法衣로는 護國의 僧將 西山大師의 袈裟를 비롯하여 泗溟、碧岩大師의 袈裟와 長衫이 전해오고 있다.



(圖 27) 西山大師袈裟(大興寺소장)
조사일 : 1974.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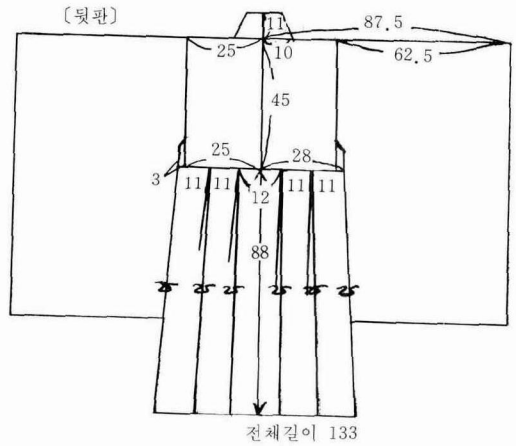
(圖 28) 西山大師碧玉鉢盂(大興寺소장)
발우의 크기
大 : 직경 21.5cm, 높이 9.5cm
中 : 직경 16.5cm, 높이 6.5cm
小 : 직경 12.5cm, 높이 5cm



(圖 29) 西山大師繡鞋 2벌(大興寺소장)
鞋의 크기
길이 : 15.5cm
폭 : 6.5cm

의 기치아래 僧軍을 일으킨 이가 곧 西山스님이며 그는 바로 초대 僧軍 大將이었다. 그는 혁혁한 공을 세우니 宣祖는 八道禪敎都摠攝이라는 최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에 일어나 전후 七년간을 휩쓴 임진왜란은 우리의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극이었는데 이때 護國濟民 歷史를 통하여 최대의 비

고의 僧職을 내렸다. 그러나 스님의 나이 七〇이 넘어 그 직책을 제자 인 泗溟에게 물려주고 妙香山으로 돌아가지 宣祖는 스님에게 國一都大 禪師禪敎都摠攝扶宗樹敎普濟登階尊子라는 최고의 존칭과 함께 正二品の 當상관 작위를 하사하여 나라의 공과 불교의 德을 치하하였다.

이후 스님은 宣祖三七년(一六〇四)에 入滅하였는데 大師의 遺囑에 의 하여 錦欄袈裟와 鉢盂 등 法器를 舍利浮屠와 함께 全南海南 大興寺에 봉 안하여 오늘에 전하는데 이 袈裟는 宣祖大王이 하사한 것이라고 한다.

〔袈裟의 說明〕
이 袈裟 크기는 二六一×九四cm 二三條四長一短의 大袈裟로서 黃金色 비단 바탕에 金絲로 八寶紋樣이 繡繪은듯 짜인 黃羅金點袈裟(圖 二七) 인데 안은 紫色 명주를 겹겹 袈裟이다.

그러나 現在 이 袈裟는 年輪이 오랜 탓으로 老朽되어 가사끝의 二條 가 떨어져 나가고 欄도 없어 袈裟의 크기가 二四〇×九四cm로 보기에 쉬

우며, 二二條 袈裟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二三條 袈裟임에 틀

림이 없다. 그것은

袈裟의 中央線인 主軸(主幅)에서 보면 右使 十二條、左使 九條、中央

一條로 얼핏보면 二二條같이 보이거나 모든 袈裟는 主幅을 中心으로 左右

一條로 얼핏보면 二二條같이 보이거나 모든 袈裟는 主幅을 中心으로 左右

一條로 얼핏보면 二二條같이 보이거나 모든 袈裟는 主幅을 中心으로 左右

一條로 얼핏보면 二二條같이 보이거나 모든 袈裟는 主幅을 中心으로 左右

一條로 얼핏보면 二二條같이 보이거나 모든 袈裟는 主幅을 中心으로 左右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李朝의 織物중 紋樣은 高級絹織物에 局限되어 上層社會에서만 使用하였고 高級紋緞은 대부분 中國에서 輸入하여 國內名絹이란 겨우 紬뿐이었다(74). 그리고 黃色은 中央土色으로 中原의 天子가 黃龍袍를 입었다.

이런점을 미루어 보아 이 袈裟는 宣祖大王이 西山大師의 공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最上의 黃色紋緞의 中國비단으로 만들어 하사한 袈裟일 것으로 본다.

또한 大興寺에는 西山大師袈裟와 더불어 大師의 碧玉鉢盂(圖二八)三개와 大師가 마루나 복도에서 신던 것으로 명나라 응원군이 증정한 것으로 추정하는 繡鞋(圖二九) 二벌이 함께 傳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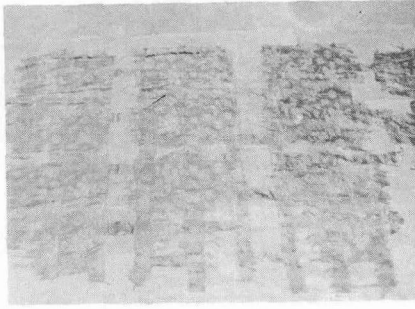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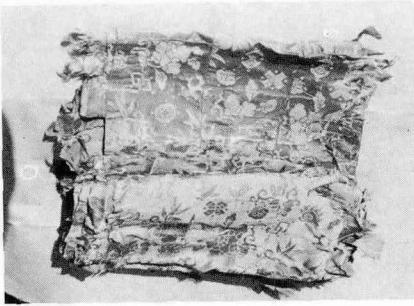
西山大師袈裟의 실측(表十二), 제도(表十三)

2, 泗溟大師 袈裟와 長衫(一五四四)~(一六一〇)

泗溟大師는 中宗三九(一五四四)경남 密陽에서 태어났으며 光海君二(一六一〇)에 열반하였다.

俗性은 豊川 任氏, 字는 離幻, 號는 松雲 모는 泗溟堂, 塔號는 鍾峯이다.

一三세에 俗學은 賤陋한 것이라하여 出家하고, 明宗十六(一五六一)에 僧科에 올랐으며 宣祖八(一五七



(圖 30) 泗溟大師袈裟一部分(表忠寺소장) 조사일 : 1974. 9

(表 12) 西山大師袈裟의 실측 (단위 : cm)

西山大師袈裟(大興寺)	
袈裟크기	261×94 ※ 2條가 없는 현재크기 240×94
主幅크기	15×18
1長크기	11×18
1短크기	11×9
葉넓이	4
欄넓이	6
天·王	無
日·月	無
특징	黃羅金點袈裟

五)에 妙香山에 들어가 淸虛會下에서 印可를 얻었다. 宣祖三七(一六〇四)에는 王의 特命으로 日本에 修信史로 가서 國交再開의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이에 朝廷에서는 國一都大禪師扶宗樹教普濟生靈弘濟尊子の 法號를 내렸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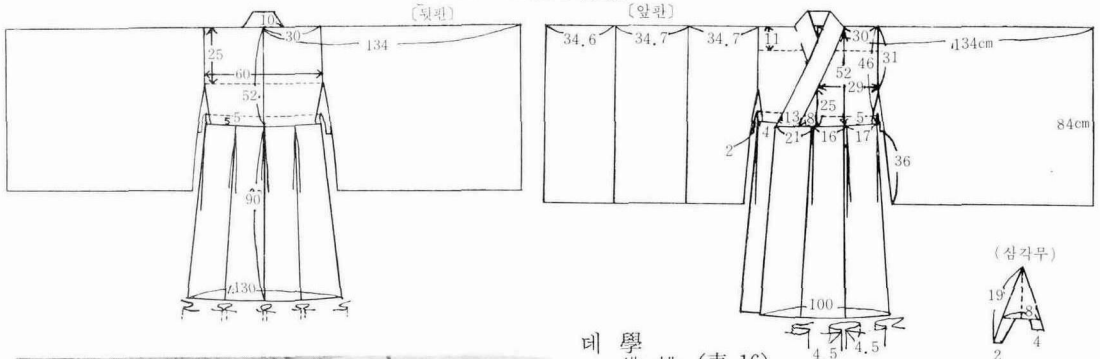
西山大師의 法脈을 이은 泗溟大師의 袈裟와 長衫이 慶南 密陽 表忠寺에 보관되어 있다. 長衫과 袈裟는 지정문화재(民俗資料 二九號)로 되어 있는데, 袈裟는 몹시 삭아서 형태를 잘 알아 볼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나, 筆者가 一九七四年 九월과 一九七五年 二월 二次에 걸쳐 조사한 바로는 다음과 같다.

〈袈裟의 說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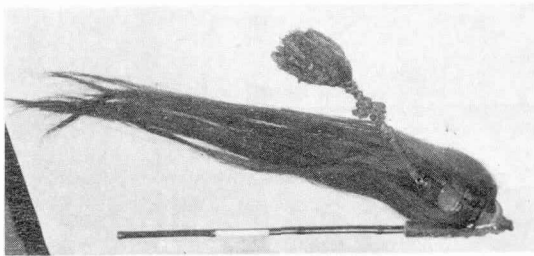
袈裟는 몹시 삭아있었지만 이것을 피놓고 보니條가 거의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어 치수를 測定할 수 있었다.

이 袈裟는 黃色비단 바탕에 七寶紋이 있는 金欄袈裟(圖三〇)이며, 二五條四長一短의 糞袈裟로 크기는 二五六×八四cm 임이 판명되었는데 이것은 袈裟의 條數와 主幅, 長, 短, 葉, 欄의 크기를 재어서 이 치수에 맞게 製圖를 해보았더니 算出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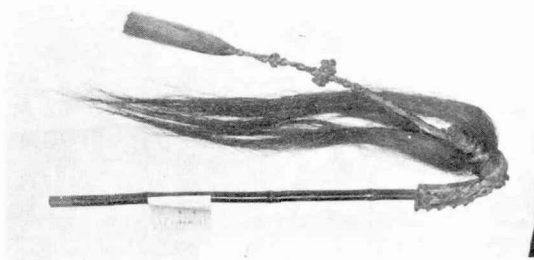
(表 17) 泗溟大師長衫



(圖 32) 泗溟大師拂子와 연꽃鉢盂(表忠寺 소장)



(圖 33) 拂子 (1) 高麗 때 拂子(송광사 소장)



(2) 拂子

그리고 고려에서는 가사안에
偏衫과 裳을 着用하였는데, 李
朝는 偏衫과 裳이 連結된 長衫
을 着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色은 겨울은 藍色 비단으로, 여
름에는 黑色 細麻로 만들었음을
賜與한 品目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現存 泗溟大師의 長衫은 白
色에 가까운 연灰色 무명 長衫인

拂子는 塵拂이라고 하는데 歷代 祖師가
學佛 大衆을 지도 傳달하는 時 高麗로 추
대 이 塵拂은 松廣寺에도 年代를 高麗로 추

(表 16) 泗溟大師長衫(表忠寺)

명 칭	치수(cm)
총 길이	142
화 장	134
품	52
진 동	46
소매 통	84
등 길이	52
깃 넓이	13
등 정	無
치마 길이	90
치마 폭 넓이	340
치마 주름	8개

정하는 拂子二점(圖三三)이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 부터 拂子를
使用하지 않았나 한다.
以上에서 法衣를 實物로 통하여 보았는데 문헌에 依하여
〈世宗實錄〉에 同王六年(一四二四)二月에 日本에 僧衣를 賜與한 것
을 보면
「大紅羅袈裟, 草綠羅 粧飾一件
紫羅 挂子, 雅靑羅 粧飾一件
藍羅 長衫一件
黑麻細布十五匹, 紅細紵布十五匹, 白細紵布十五匹,
紫斜皮 僧鞋一雙」이라 하였다.
〈高麗國經〉에 의하면 고려에는 貼相袈裟가 있었는데 李朝에는 大紅羅
袈裟라 하여 單色 袈裟만이 보이고, 특히 紅色의 大袈裟 즉 一七條以
上 僧伽梨에는 草綠色으로 粧飾을 하고 紫色 挂子 즉 五條袈裟에는 雅
靑色으로 粧飾을 한 것으로 보
이는데 이 粧飾은 纓子를 裝飾
의 物件과 같이 표시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가사안에
偏衫과 裳을 着用하였는데, 李
朝는 偏衫과 裳이 連結된 長衫
을 着用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色은 겨울은 藍色 비단으로, 여
름에는 黑色 細麻로 만들었음을
賜與한 品目에서 알 수 있었다
그런데
現存 泗溟大師의 長衫은 白
色에 가까운 연灰色 무명 長衫인

데, 世宗 一二年 二月에 僧人黑細麻布衣禁止라 하여 僧侶들의 黑色 使用을 禁하고,

同年에 『時散大小人員灰色衣服禁止』라 하여 時官·散官·大小人員은 灰色衣服 着用을 禁하였으니 이때부터 僧侶들이 灰色을 公功員이 着用 하지 않았나 본다.

3, 西山大師袈裟와 碧巖大師袈裟

全南 求禮 華嚴寺에는 宣祖大王(一五六七~一六〇八)이 西山大師(一五二〇~一六〇四)에게 下賜했다는 袈裟一領과 仁祖大王(一六二三~一六四九)이 碧巖大師(一五七五~一六六〇)에게 下賜했다는 袈裟一領, 繡花紋의 御席一件이 전해오고 있다.

그런데 碧암대사가 가사에 대하여는 宣祖大王이 碧암대사에게 下賜한 것이라는 說도 있으나 이것은 年代上으로 보아 맞지 않는 것 같다. 만약에 宣祖 즉위 末年(一六〇八)에 하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碧암대사 나이 三三歲로서 浮休大師 門下에서 修道하던 때이며, 碧암대사가 크게 활약한 시기는 仁祖二년(一六二四) 스님의 나이 五〇歲때에 八道都摠攝이 되어 南漢山城 役事를 감독하던 때로서 三년만에 築城을 완성하자 이에 王은 報恩闡教園國一都大禪師의 職을 내리고 衣鉢을 下賜하여 그 功을 치하하였다.

또한 화엄사에 있는 宣祖와 仁祖大王이 각각 하사했다는 목록을 보아도 알 수 있는 일로서, 이 衣鉢은 仁祖가 碧岩에게 下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王이 하사한 袈裟들은 袈裟品界에서 上品에 속하는데 이것은 中品에서 中上品에 속하는 一九條三長一短이므로 王이 하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도 간다.

그것은 이 袈裟아래 부분에 墨書銘「平安道 肅川 靑龍寺 居施主 比丘 斗樞 引勸兼針裁 比丘煥宇」라고 하여 시주한 사람과 袈裟를 바느질한 사람의 이름을 적은 銘文이 있기 때문이다.

西山大師의 袈裟를 大興寺에 소장중인 宣祖下賜品인 袈裟와 비교하면

大興寺 袈裟는 中央土色인 黃金色으로 宮家에서 소장하여 거던 色인데 反하여 紅色大袈裟로서 袈裟의 質에 현격한 差가 있다. 그런데 이 홍색 大袈裟를 仁祖大王이 하사한 碧암대사의 袈裟로 본다면 上品의 袈裟로서 條數에는 합당할지 모르나 天·王이나 日·月에 아무런 정교한 繡도 없이 옷감 片만이 있으므로 이것 또한 仁祖大王이 하사한 繡御席과 비교할 때 어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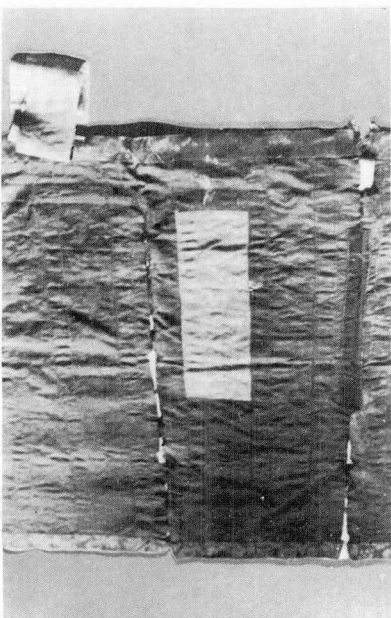
만일 一九條三長一短의 袈裟를 宣祖大王이 西山大師에게 하사한 것으로 본다면 袈裟가 사인 점은 대홍사가 가사와 비슷하나 대홍사가 가사는 黃色金點에 안은 紫色명주인데, 화엄사가 가사는 朱黃色銀點에 안은 靑靑色명주이며, 앞서도 밝혔듯이 條數에 의문이 간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조사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주지스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論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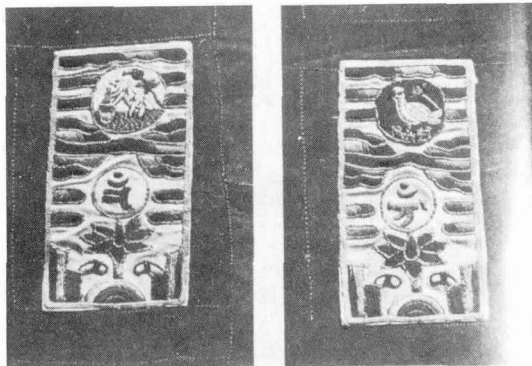
〈西山大師袈裟의 說明〉

宣祖大王의 下賜品인 이 袈裟는 紅色비단바탕에 포도 紋樣이 있는 紅色葡萄紋緞袈裟(圖三四)로서 袈裟크기는 二三七×六九cm이며 二五條四長一短의 흔결 大袈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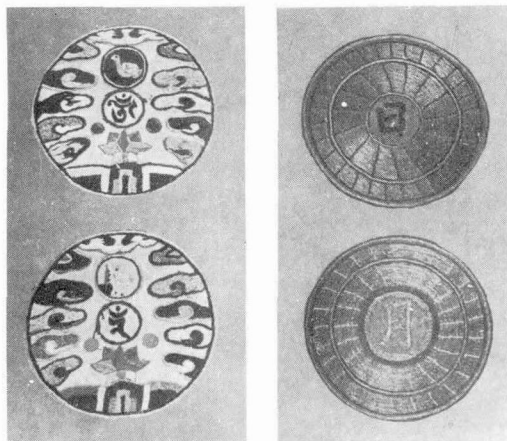
櫻子は 靑靑色으로 크기 七×八三cm이며 袈裟 네귀퉁이에 四方三·五



(圖 34) 西山大師袈裟一部分 (화엄사 소장)



(圖 37) 方形 日·月繡·19世紀(二足鳥)
許東華(1976)「韓國의 刺繡」



(圖 38) 圓形 日·月繡·19世紀(二足鳥)
「韓國의 刺繡」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大禪師와 大教師가 法冠으로 毗盧冠과 長衫을 紫色 有紋縐를 着用했다는 점이다. 僧冠에 대하여는 高구려 고분 舞踊塚 벽화에서 보이는 坎頭型의 圓頂冠은 비롯하여 朝鮮王朝 初期의 屈笠(屈笠), 송나(松蘿), 고갈(曲葛), 대삿갓(竹笠) 등은 들 수 있는데 卍 이 毗盧冠에 대한 것은 五州衍文長箋의 道袍辨證說에 서 보면

第六八條에는 末寺住持는 其法階가 大禪의 級에 在한 者라도 特히 中德의 法衣를 被着함을 得함 이라 하엿다 以上の 寺刹令에서 보면 僧侶의 級과 法階에 따른 袈裟와 長衫의 色·地質·制式의 細則을 알 수 있으며, 또 한 本寺住持와 末寺住持의 法衣에도 差等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衣冠을 被着함을 得함.

「僧尼의 衣冠은 其法階와 匹對하여 被着함으로 하되 其色別 地質 及 制式은 左表와 如함, 但 本寺○○寺 住持는 法階에 不拘하고 最上級의 衣冠을 被着함을 得함.

一九一〇년 八月에 불교는 日本總督의 治下에서 다시 새로운 體制로 바뀌게 되어 一九一一年 六月 三일에 寺刹令이 制定頒布되고, 一九二一年부터는 寺刹令에 의한 體制가 맞추어졌다.

그 당시 寺法의 第八章 僧規 六七條의 衣制를 보면

「僧尼의 衣冠은 其法階와 匹對하여 被着함으로 하되 其色別 地質 及 制式은 左表와 如함, 但 本寺○○寺 住持는 法階에 不拘하고 最上級의 衣冠을 被着함을 得함.

또한

一級은 內法階僧이니 法師講師發心修行者,
二級은 外法階僧이니 宗名及法臘 二〇歲以上者 及守護伽藍者
三級은 平僧地니 無宗名 凡僧及法臘 二〇歲以下者

처럼 어느 한 思想이 社會文化를 支配하던 때와는 달랐다.

더욱이 舊宗教, 舊思想은 차츰 民衆속으로 파고드는 新思潮, 新信仰에 밀려나 그 活動이 鈍化 되었음으로 이때에 佛敎의 活動은 유지나 보존을 힘쓰는 정도이었고 발전이나 진취적인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다.

이때 불교사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승려들의 法階에 따라 衣冠에 대한 差等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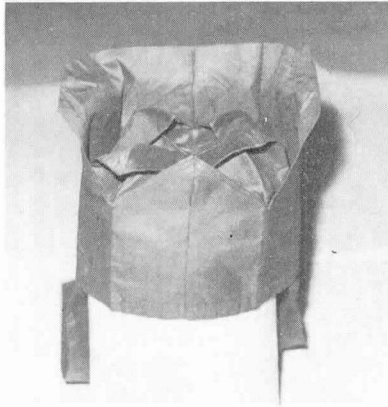
光武六年(一九〇二)에 宮內府 소속으로 管理署를 元興寺에 두어 全國 寺刹에 관한 일체 事務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때 發布된 三六個條의 寺刹令 즉 社寺管理署管理細則의 第五條를 보면 卍

僧侶의 大衣色은 如左 三等으로 改定하니

「一級僧은 正紅色 有文錦襪

二級僧은 正紅色 無文錦襪

三級僧은 正紫朱 無文者」라 하여 色相과 무늬의 有無로서 等級을 가렸다.



(圖 39) 수계할때 쓰는 모자
(松廣寺소장)

그런데 松廣寺(圖 三九)와 경남 동래 梵魚寺(圖 四〇)에는 수계할 때 쓰는 모자라고 하여 전혀 오고 있는 모자가 각각 조금씩 소장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방전부터 전해온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毗盧冠이 아닐까 추측해 보는 데 이것은

日本の 黄檗宗法服法衣를 ⑧(圖 四一)보면 袈裟는 赤色, 法服 즉 直綴은 紫緞子地, 帽子는 黑地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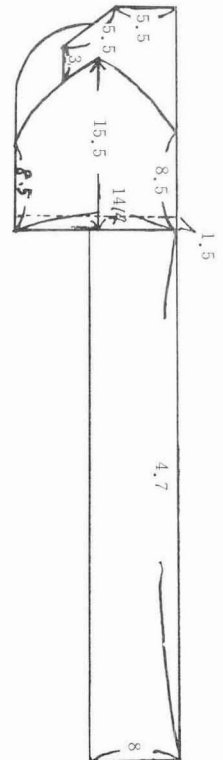
「冠曰五福曰毗盧或施以八寶或嵌以金玉凡畫佛像則有唐像梵像之說始於武後云……」라 하였고 佛學大辭典에 보면 ⑤ 毗盧冠은 黃檗僧이 썼던 帽子로서 위에 毗盧冠이라 한다 하였다.

種目	法	階
大禪師 大教師	毘盧冠	沙彌
禪師 大德	無	大禪
中德	無	
	無	
	無	

袈裟 地質 色	法冠	階
長衫 地質 色 制式	有紋絹 紅色 九條乃至二十條	沙彌
有紋絹 紫色 長衫形但道服 有紋絹 紺青色 長衫形	葛黃色 有紋絹 七條	大禪
有紋絹 紺青色 長衫形	無紋絹 灰色 同上	
同上	木綿 黑色 同上但 袖가 縮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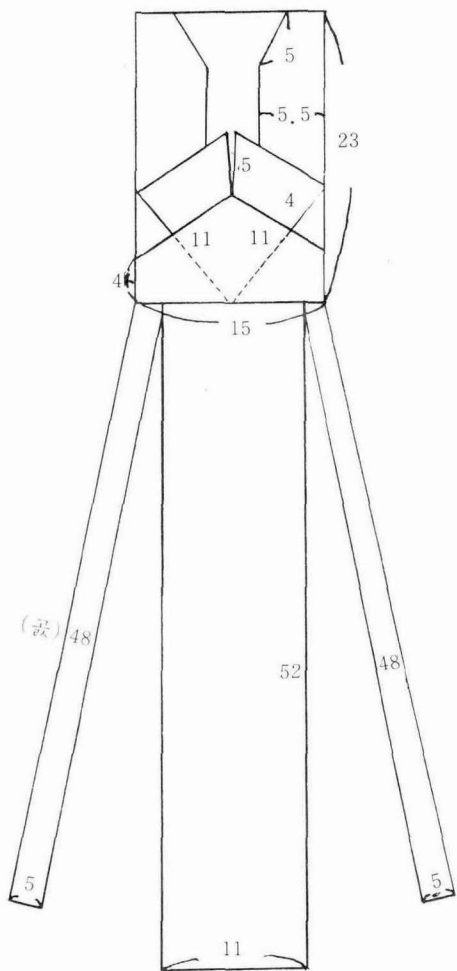


(圖 40) 수계할때 쓰는 모자(梵魚寺)





(圖 41) 日本黃檗宗法服法衣



金線이 있는 誌公帽子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전하는 모자와 有似한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傳하는 帽子的 형태는 연꽃잎으로 冠을 싸고 연꽃잎으로 속심을 대어 이것을 가다가 다 되면 꼭 연꽃이 된 모양과 같다.

그리고 冠뒤에는 받침이 우뚝서 있고 그 뒤로는 三가닥의 끈이 땀기를 드린듯하게 내려와 있다.

毘盧遮那佛은 부처님의 眞身을 나타내는 칭호로 부처님의 身光, 智光이 理事無礙의 법계에 두루 비추어 圓명한 것을 의미함으로 大禪師의 法冠에 이 명칭을 쓴 것 같다.

또한 長衫에 있어서 紫色 有紋絹도 日本에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역시 黃檗宗法服과 같다.

그런데 松廣寺에는 一九四六년 頃으로 보는 綺山 스님의 紅色과 紫色의 長衫과 紅色袈裟 一점이 보 관되어 있는데, 紅色絹織 長衫은 앞에 高麗 普照國師長衫에서 실측, 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綺山 스님의 餘縵용 紫色 有紋紗 長衫(圖 四二)에 대하여 살펴보면 紫色 장삼의 치수도 紅色 장삼의 치수와 거의 같으며 동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紫色長衫의 치수(表 二二二), 製圖(表 二二四)

綺山 스님의 袈裟는 紅色의 有紋絹織이며 二五條四長一短의 大袈裟(圖 四三)에 纓子대신 銀고리 卍字장식이며, 圓形의 繡板에 日·月을 二足烏와 토끼로 표시하였으며 天·王이 있는 袈裟이다. 실측은 (表 二二五)이다.

以上の 것으로 미루어 보아 綺山 스님의 法服은 大禪師나 大教師의 것으로 日制時 寺刹令에 의한 法服으로 앞으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一九四三年 三월에 妙香山 普賢寺에서 學僧들의 卒業式에서 찍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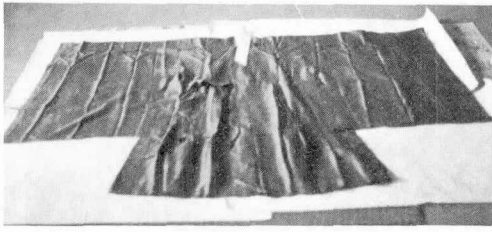
진(圖四四)을 보면

學僧들은 검은색과 회색의 두루마기 式의 長衫을 입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太古宗의 長衫과 같은 형으로 넓은 동정과 옷고름이 있으며 또한 옷고름 위치에서 부터 몸을 한바퀴 도는 가는 띠가 둘러 있다.

그리고 앞 左側 二번째에 앉아있는 스님은 어깨에 거는 五條 袈裟와 회색장삼을 입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정은 없으며 신은 日本式 나무신을 신고, 바지에는 냇님을 매고 있는 모습이며, 左側 첫번째 學僧은 행진 을 두르고 있다.

여기에서 袈裟는 日本 曹洞宗의 掛絡姿(圖四五)와 같다.

以上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俗服 즉 바지 저고리 위에 長衫을 입고 일 는 五條 袈裟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가는데, 그러나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掛絡은 唐의 則天武后때 부터라고 보며 목에 거 는 끈은 威儀라고 하며 環과 함께 좀 더 美化되고 또한 衣料도 화려하 게 된것들은 日本에서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하며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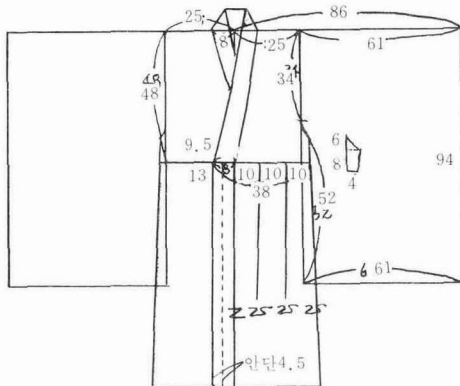
(圖 42) 綺山스님의 紫色長衫(송광사 소장)

(表 23)

綺山스님 紫色 長衫

명칭	치수(cm)
총길이	132
화장	86
등길이	48
소매통	94
진등	34
뒤품	50
깃넓이	9.5
뒷고대	16
동정넓이	5
치마길이	84
치마주름	10개

(表 24) 綺山스님 紫色長衫實測圖



본격적으로 착용하게 된 것 같다.

佛敎가 一九四五年 祖國解放과 더불어 한국불교 曹溪宗으로 자세를 再 整備하여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어 布敎面으로나 교육 및 문화적인 諸般 事業에 있어서 解放이후 長足の 발전을 보았으나, 지금은 佛敎宗派가 一八개로 나누어져 統一性和 일관성이 없이 제각기 僧服을 착용하고 있어 僧侶 본연의 威儀를 잃게 하는 경우가 많아 衣制面에서는 오히려 落後한 感이 있다.

여기에서는 一八개 佛敎宗派중 大別하여 曹溪宗과 太古宗의 僧服만을 다루고자 한다.

1. 曹溪宗의 僧服

曹溪宗 總務院 敎化制度研究에서 보면

「袈裟는 威儀大袈裟、儀式服袈裟、行服袈裟、徽章袈裟、沙彌袈裟 등 五種으로 구분하고 袈裟의 形式은 佩章袈裟와 徽章袈裟로 나누어 前者는 威儀있게 佩用하는 것이고 後者는 小型의 標識으로 하였다. 服地는 化學纖維羅紗地로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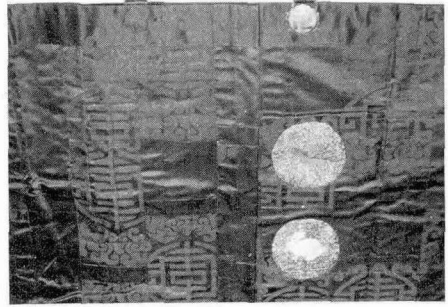
(圖 45) 日本曹洞宗掛絡姿

色彩는 從來의 水墨色과 壞色으로 하는데 色은 原色을 제외한 文化
 色을 意味한다.
 모양은 聖職의 威儀를 높일수 있음을 고려하는데 從來의 形式이나 모
 양에 拘碍하지 않는다.
 着用者는 比丘에 限하는데 但 沙彌라 하더라도 儀式執典의 代表일 경
 우에는 儀式用을 착용할수 있으나, 儀式用袈裟는 着用할수 없다.



(圖 46) 長衫과 5條袈裟
 (송광사 前주지 法興스님 提供)

儀式服을 착용하였을 때는 作業、路上步行、速步輕動들을 禁止한다
 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면



(圖 43) 綺山스님 紅色 袈裟 一部分
 (송광사소장)

(表 25)

(단위 : cm)

綺山스님 紅色 袈裟 (송광사)	
袈裟크기	222×95
條 數	25條 4長 1短
主幅넓이	11.5×17
1長크기	9×17
1短크기	9×9.5
葉넓이	2.7
欄넓이	4.7
天·王	4×4
日·月	직경 9
특 징	紅色有紋絹袈裟



(圖 44) 5條袈裟(묘향산 보현사에서)

袈裟의 材料와 色도 본래의 것과 많이 달라졌는데 材料는 주로 화학 섬유를 사용하고, 色은 褐色으로 하고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도 목에는 五條袈裟와 大袈裟로 구분하고 大袈裟는 매듭단추를 使用하여 着裝 하고 있다.

또한 長衫의 材料도 화학섬유나 모직물을 使用하고 色은 灰色으로 하여 上衣下裳式의 直綴이다.

現在 着用되고 있는 화학섬유로 만든 褐色 五條袈裟와 灰色長衫을 着裝한 모습은 (圖 四六)과 같다.

그리고 松廣寺 方丈 九山스님의 二〇여년전에 만든 一三條二長一短의 袈裟(圖 四七)를 조사하였는데, 바느질에 있어 과거의 袈裟와 비교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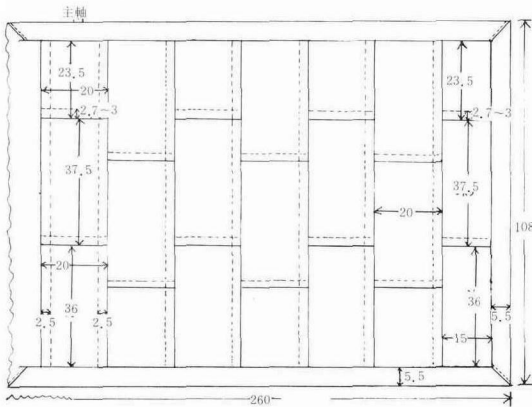
그것은 처음 우리나라에 가사가 들어왔을때는 比丘들이 직접 만들고 後에는 신도들에 의해 손바느질로 상침을 하면서 반드시 葉에 通門을 두어 眼盲報를 받지 않도록 하였는데 現在는 僧侶服만 전문으로 만드는 곳이 생겨, 재봉틀로 바느질하여 다량으로 생산되는데 이때는 通門을 낼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의 가사는 割相을 나타내기 위한 方法으로 葉중간을 한번



(圖 47) 13條袈裟와 拂子 (송광사방장 九山스님 提供)

(表 27) 九山스님袈裟實測圖



(表 26)

(단위 : cm)

九山스님袈裟(송광사)	
袈裟크기	260×108
條數	13條 2長 1短
主幅넓이	20×36~37.5
1長크기	20×36~37.5
1短크기	20×23.5
葉넓이	2.5~3
襴넓이	5.5
天·王	無
日·月	無
특	壞色細紵袈裟

씩 박아서 중간이 뜨게 하였는데, 한편으로는 通門이 없는 袈裟이므로 물고랑을 내는 式으로 하는 二重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같다.

九山스님의 袈裟는 위의 方法으로 재봉틀로 바느질이 되어 있었으며 色은 壞色(靑·黑·紫色)으로 물들였은이고 材料는 모시, 天·王과 日·月은 없으며 매듭 단추를 使用하여 着裝하게 되어있다.

九山스님 袈裟 실측(表 二七)、製圖(表 二六)

2、太古宗의 僧服

태고종에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승복은 袈裟材料는 絹과 화학섬유, 色은 紅色으로서 과거의 色相을 그대로 使用하고 반드시 正方形 四角천에 天·王을 繡놓고 日·月은 三足鳥와 토끼, 또는 日·月의 글씨와 字를 圓形이나 方形 繡板에 繡놓는다.

그리고 바느질법에 있어서도 손바느질로 상침을 하며 通門을 내고 있는데 上品袈裟일때는 九개의 通門, 中品은 七개

V、結 論

이상으로 佛教服飾인 法衣에 관하여 印度、中國、韓國을 通해 그 成立傳來、變遷과정을 연구하고、特히 韓國法衣의 時代的變化와 差異에 대해 現存遺物을 中心으로 考察하여 보았다.

印度에서 出發한 佛教가 中國에 傳來된 이후 老莊學의 土着思想과 接合하여 思想的으로는 그 宗旨가 더욱 밝아졌지만 制度的인 面에서는 文質이 彬彬의 土着文化와 接合하여 그 體系가 더욱 定立이 되었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中國法衣에 特質로서 나타난 華麗化 내지 裝飾化는 어떤의 米에서는 當初 法衣의 變質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겠지만 法衣의 儀禮的인 具體化라고 봐야 할것이다.

우리나라는 中國을 通하여 佛教가 傳來되었으므로 法衣 또한 우리 固有服飾과 中國服飾과의 二重構造에서 발달했으며 그 후 시대를 달리 하면서 차차 우리의 韓國的인 法服을 着用하게 되었다.

이제 時代別로 나누어 韓國法衣의 變遷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三國時代의 法衣

고구려의 法衣는 大袖狀의 黑色袍위에 偏袒右肩으로 紅色과 靑色으로 彩色된 大袈裟를 입었으며、또한 黑色袍안에는 團領의 內衣와 잔주름의 裙을 着用하고、百濟의 法衣는 高句麗와 같은 袍를 입고 그 아래 裙을 입었으며、袈裟도 單一色이나、또는 貼相袈裟를 着用하지 않았나 한다

新羅의 法衣는 初期에는 고구려와 같이 黑色袍나 혹은 唐의 影響을 받은 偏衫과 裙위에 袈裟를 착용하였고、末期에는 偏衫과 裙이 連結된 直綴 즉 長衫위에 袈裟를 着用하였다.

그리고 僧職에 따라 大國統(寺主)은 有紋絹 大袈裟、또는 縞袈裟를 입었으며 袈裟의 형태는 單一色이나 貼相袈裟를 착용했고、色은 黃色이

나 紅色을 使用한 것으로 보이며、袈裟 네 귀퉁이에는 天·王표시가 있는 것과、없는 것、또한 卍字표시가 있는 것등 다양하였으며、着裝方法은 纓子나 빗장장식을 使用하였는데 末期에는 纓子가 實用的인 面보다、裝飾的인 面이 더 加味된것을 遺物을 통하여 알수 있다.

二、高麗時代의 法衣

法階에 따라 法衣의 差等を 두었는데、袈裟의 種類는 出水納袈裟、磨納袈裟、佛名號繡袈裟、滿繡袈裟、紫黃貼相袈裟、壞色五條袈裟 등으로 이것을 大別하면 ① 單一色袈裟、② 貼相袈裟、③ 繡袈裟이다. 그런데 沙彌比丘는 袈裟를 着用하지 못하고 壞色縵衣를 입었다.

袈裟의 付着物로는 日·月과 天·王繡가 있다.

法服은 大袈裟일때는 長袖偏衫과 紫裳、五條袈裟일때는 短袖偏衫과 黃裳을 입었고 또한 白衫、皂施欄衫、長衫(하늘색)등을 입었으며、특히 長衫깃에 등정 有無에 대해서는 普照國師長衫때 부터인지는 확실치 않다.

신은 皮鞋、鈴履、沐浴鞋가 있었으며、彩帽、笠子、冠纓을 썼으며、王師나 國師의 지휘봉으로 拂子가 있다.

三、朝鮮王朝時代의 法衣

法階에 의한 法衣의 差等이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것은 排佛思想이 强했던 時代的인 影響으로 보이며、그리하여 대체로 자유롭게 法衣를 着用한것 같다.

袈裟는 크기에 관계없이 單一色 袈裟로서 특히 고려의 繡袈裟에 비해 李朝는 紋樣이 발달하여 袈裟의 紋樣이 다양해 졌는데、이것은 李朝時代의 紋樣研究에도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이다.

초기에는 大紅羅袈裟에 粧飾 草綠羅、紫羅五條袈裟에 粧飾 靑羅로 하였으며

중기에는 紋樣이 다양해져서

黃羅金點袈裟에 八寶紋樣

金欄袈裟에 七寶紋樣

紅色袈裟에 葡萄紋樣

朱黃色銀點袈裟에 牡丹唐草紋樣等이다.

袈裟의 형태는 후袈裟와 겹袈裟(안은 명주를 사용한)로 구분되며, 付着物로는 日·月의 繡板이 方形에서 圓形으로 변하고, 日은 三足鳥가 二足鳥로 표현된 경우도 있다. 着裝方法은 纓子가 裝飾的인 面에 ち중하여 二·三色の 끈 특히 綠, 紅, 紫, 黃, 靑色등의 五正色이나 間色을 주로 使用하였다.

法服은 長衫色이 초기에는 藍色 또는 黑色이었으나, 黑色禁令이후 灰色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신은 紫斜皮僧鞋, 繡鞋가 있었으며, 蓮꽃木鉢盂와 碧玉鉢盂가 전해오고 있다.

四、大韓時代의 法衣

초기에는 승려의 法階에 따른 大衣色(袈裟)을 制定하여 色相과 무늬의 有無로서 等級을 가렸다.

日制下에서는 寺刹令에 의해 法階에 따른 衣制의 體制가 갖추어져서 袈裟뿐만 아니라 長衫에 대한 色, 地質, 制式도 함께 定해졌으며, 특히 할만한 것은 法冠에 있어 毗盧冠을 쓰게한 것이다.

또한 長衫에 있어 紫色, 紺靑色, 灰色, 黑色등으로 구분을 두었는데 이것은 李朝의 藍色, 黑色, 灰色長衫과 비교가 된다. 그런데 紫色長衫에 紅色袈裟 착용은 日本의 黃檗宗法服法衣와 有似한 것으로 이때에는 우리 고유의 僧服보다는 日本의 法服을 着用한 것으로 본다.

현재 조계종의 長衫은 灰色의 上衣下裳式의 直綴형이고, 袈裟는 褐色으로 大袈裟와 목에거는 五條袈裟(掛絡姿)로 나누며, 태고종의 長衫은 灰色이나 白色의 두루마기식의 欄衫形과 道袍形이며, 袈裟는 紅色有紋絹으로 日·月과 天·王의 繡가 있는 袈裟로서 서로 差異點이 있다.

앞에서 살펴볼 때

韓國의 佛敎文化 遺産은 中國과 비해서도 損色이 없다.

아니 어떤 面에서는 能加한다.

그러나 遺産은 어디까지나 遺産的 價値가 있는 것이며,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이제 韓國佛敎는 大衆化, 社會化를 지향하는 이마당에 새로운 衣制의 制定이 切實히 필요하다.

筆者의 私見으로는 佛敎가 비록 超現實的인 宗教라는 特殊한 條件이 있지만 그렇다고 現實을 완전히 떠나서는 佛敎自體가 存在할수 없는 이만큼 現實的인 時代性을 감안하여 僧侶의 服裝을 修行服과 外出服, 즉 法服과 平服으로 區分해서 山寺에서 參禪이나 念佛을 할 때는 法服을 着用하고, 市中에 出入하거나 雜務를 볼 때는 平服을 着用하도록 하는 것이 佛敎의 將來와 發展을 위해 바람직한 方向이라고 하겠다.

(註)

- ① 李京子·「朝鮮王朝時代 織物의 紋樣考察」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一九七五)
- ② 禹貞相·金煥泰·「韓國佛敎史」 P, 一四五
- ③ 李康七·「清代龍袍紋樣小考」 考古美術(一九七八)
- ④ 世宗實錄 卷二十三, 六年二月條
- ⑤ 世宗實錄 卷四十三
- ⑥ 一九七五年 四月一六日 調査 慶熙 華嚴寺住持의 傳言
- ⑦ 慎蘭淑·「우리나라 袈裟에 對한 研究」 P, 六八
- ⑧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 華嚴寺 P, 一〇四, 서울 一志社(一九七六)
- ⑨ 禹貞相·金煥泰·「韓國佛敎史」 P, 一六七
- ⑩ 前揭書 P, 一八四
- ⑪ 柳喜卿·「韓國服飾史研究」 P, 三九三
- ⑫ 「佛學大辭典」 卷中, P, 一五九二 寶蓮閣
- ⑬ 井筒雅風·「法衣史」 P, 七, 東京雄山閣出版(一九七四)
- ⑭ 井筒雅風·「袈裟史」 P, 二八三
- ⑮ 「大韓佛敎」 一九七五年 一〇月 二六日

世宗大學家政學科 教授